

제4장

한탄강(화강) 각종 축제



한탄강 래프팅

▶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2013년 제10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로 성장했다. 본 대회는 우리의 분단 실상과 통일 의지를 알리는 동시에 강원도 제일의 곡창지대인 철원평야에서 생산되는 전국 최고 밥맛의 철원오대쌀 홍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DMZ 청정지역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누렇게 변한 드넓은 황금별판 사이를 달리는 대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할 것이다. 제10회 대회가 2013년 9월 8일에 열렸고, 올해 11회 대회는 9월 28일(일) 오전 9시 고석정 주변 철원군 일원 정규 코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철원군과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철원군체육회가 주관하며 그래미 여명808이 공식 협찬한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으로 지역의 특산물인 철원오대쌀과 (주)그래미의 스태미너 음료 다미나 909가 지급되며, 참가수기 공모를 통해 단발 이벤트성 마라톤대회가 아닌 참가자들의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가부분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그리고 가족걸기가 있다. 풀코스는 대회본부가 있는 고석정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금학산을 바라보며 조선 태종 이방원이 강무장으로 이용

했던 철원평야(대야잔평)를 가로질러 북쪽 방향으로 달린다. 일제강점기 때 인구 2만 명이 도시를 형성했던 월하리와 관전리 일대 옛 철원군시가지를 관통해 월정리역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달린다. 궁예왕 태봉국도성과 휴전선 DMZ를 북쪽으로 끼고 달려 동송저수지 독방 밑을 지나 남쪽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달리면 철새마을 양지리에 다다른다. 양지리에서 방향을 틀어서 옛 금간산철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달리면 1차 반환점이 나오고 여기서 한탄강을 따라 남쪽방향으로 달리면 대위리와 오덕7리를 나오고 태봉대교에 다다르게 된다. 2차 반환점을 지나 남쪽방향으로 한여울 길과 나란히 있는 강변도로를 달려가면 이내 고석정 결승점에 도착하게 된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은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DMZ 부근의 철원평야를 일대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이다.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분단과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철원 땅을 달리면서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는 대회이다. 그리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최북단 DMZ를 달리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짐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그 상징성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는 물론 외국인 출전자들이 점점 늘어 이제는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고석정 광장에 모인 출전 선수들

곡창지대 철원평야와 일제강점기 번성했던 옛 철원을 시가지를 통과하고 대동방국의 웅지가 서려있는 태봉국도성과 철새마을 양지리를 경유해 옛 금강산전철 길을 밟아보고 한탄강 주상절리를 따라 달리는 철원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코스라 할 수 있다. 풀코스 주변에 있는 관광지나 유적지는 금학산, 도피안사, 노동당사, 소이산, 백마고지, 근대문화유적센터, 월정역, 철원평화문화광장, 평화전망대, 태봉국도성, 제2땅굴, 철새마을 양지리, 토교저수지, 칠만암, 직탕, 태봉대교, 송대소, 마당바위, 고석정, 승일교, 한여울길, 문화생태탐방로 등지가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난번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시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회 전날 철원에 와서 편안하게 관광을 즐기고 다음날 대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단순한 마라톤대회가 아닌 1박2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10회 대회를 치르면서 대회운영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었고, 2013년 강원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철원군 전체 숙박시설과 음식점도 정비되어 이제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

▶ 철원 한탄강 래프팅 축제와 얼음트레킹 축제



한탄강 중류 고석정 고석바위

철원지역은 지금으로부터 27만 년 전에 철원 북방 평강 서남쪽 5km 지점 오리산(鴨山 453m)에서 화산이 폭발해 만들어진 용암대지이다. 한반도에서 한탄강 일대는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유년기 지층으로 가장 최근에 생긴 젊은 땅이다. 분출된 용암이 추가령과 전곡 고랑포 사이 낮은 골짜기를 메움으로써 철원, 평강을 중심으로 한 이천, 김화, 회양 등 5개 군 지역에 걸쳐 약 650km²(약 1억9천6백만 평)에 이르는 광대한 들이 형성되었다. 용암이 흘러 옛 한탄강 지류를 막아 부분적으로 호수

가 생기기도 하였다. 용암대지 한 가운데가 깎여나가 강 양쪽으로 수직 절벽인 협곡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성분이 상이한 암석 경계면을 따라 침식이 일어나 화강암 지역은 완경사, 현무암 지역은 급경사를 이루어 비대칭 형태의 계곡이 탄생했다. 이러한 비대칭 협곡은 송대소나 고석정, 순담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철원군이 화산지형이라는 것은 한탄강 주상절리(柱狀節理)에서도 나타난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어서 굳을 때 수축 현상으로 인해 갈라져 틈이 생기고, 현무암이 물에 의해 침식되는 과정에서 바위가 절단면을 따라 떨어져나가면서 수직 바위절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중부지방에서 현무암 침식이 빠르게 일어나는 이유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연교차가 크고, 서리 작용이 강하여 바위 틈새로 유입된 우수가 동결 팽창하면서 바위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철원지역은 산지지형으로 강수량이 일시에 집중되어 한탄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강물의 침식에너지가 평소보다 몇 배는 커진다. 이러한 환경조건은 현무암층을 빠른 속도로 침식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직절벽과 굽이치는 물길 때문에 한탄강이 스릴 넘치는 전국 최고의 래프팅 명소가 된 것이다. 한편 한겨울이면 강추위에 한탄강이 퐁퐁 얼어 얼음판으로 변한 물줄기를 따라 직접 걸으며 여름에 볼 수 없던 곳까지 속속들이 돌아보며 체험할 수 있다.



한탄강 래프팅 (너른바위 일대)

강원도에서는 영월 동강과 인제 내린천에서도 래프팅을 하고 있지만 철원 한탄강 래프팅이 각광받는 이유는 전 구간이 20~30m 정도의 기암절벽으로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산폭발로 갑자기 유로가 생기면서 굴곡과 낙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짜릿짜릿한 스릴과 성취감을 맛보고 지질탐방도 겸할 수 있는 철원 한탄강 래프팅은 다른 지역과 차원이 다르다. 철원 한탄강 래프팅은 직탕~태봉대교~송대소~마당바위~승일교~고석정~순담~샘소~군탄교 등 거의 전 구간에서 가능하나, 전방 지역은 군

작전상 불가하다. 실제 운행구간은 승일교⇔순담, 순담⇔군탄교, 승일교⇔군탄교, 직탕⇔승일교, 직탕⇔순담, 직탕⇔군탄교 등이 있는데 각 코스별로 소요시간(3~5시간)과 비용(3~5만원)이 다르므로 이용자가 편의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철원군에는 현재 40군데 래프팅 업체가 성업 중이고 래프팅 이외에도 서바이벌, 사륜바이크, 산악자전거 등의 모험레포츠와 철원군 문화생태탐방로인 한여울길 걷기 등을 즐길 수 있다.

해마다 8월 초순 경 철원군이 주최하고 철원군래프팅연합회가 주관하는 ‘철원 한탄강 래프팅 축제’가 개최된다. 래프팅 축제는 한탄강과 래프팅을 테마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 개발과 지역 레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축제이다. 2007년 처음 시작되어 초기에는 단순한 철원군수배 래프팅 대회 형식이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대회 참가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일반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2013년 8월 1일 제7회 대회가 순담계곡에서 열렸고, 2014년 8월 16~17일 제8회 대회가 축제형식으로 승일교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메인 행사로 래프팅 대회와 부대 행사로 바디페인팅 시연, 댄스경연대회, 사진 콘테스트, 막걸리 빨리 마시기 등이 열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여름레포츠 축제였다. 한탄강 래프팅 축제는 해마다 김화읍 화강 쉬리공원에서 개최되는 화강 다슬기 축제와 더불어 철원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래프팅과는 또 다른 스릴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한탄강얼음트레킹이다. 래프팅이 5월부터 여름 내내 약 150일간 즐길 수 있는 레포츠라면 얼음트레킹은 1월 하순 딱 15일만 즐길 수 있는 모험레포츠이다. 그나마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지속되어야만 가능하고 휴전선 이남에서는 오직 철원에서만 할 수 있는 레포츠이기에 희소 가치가 크다. 한탄강얼음트레킹은 철원군 한탄강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직탕~송대소~마당바위~승일교~고석정 구간에서 주로 행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송대소)

해진다. 얼음트레킹은 추운 날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반드시 한탄강 지리에 밝은 지역 전문가 안내에 따라야 한다. 직탕에서는 퐁퐁 얼어붙은 폭포를 감상할 수 있고, 송대소에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장흥리 주상절리 구간은 유럽의 빙하트레일을 연상시키고, 뽕뽕 얼어붙은 한탄강에 박혀있는 승일교 교각은 더욱 추위 보인다. 하얀 설국 위에 우뚝 솟은 고석정 고석바위와 그 꼭대기 독야청청 푸른 소나무는 한탄강얼음트레킹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제2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

개인이나 산악회 등 마니아 차원에서 이뤄지던 한탄강얼음트레킹은 2013년 1월 19일 지역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하는 공식적인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대회(철원군 주최, 철원공감 주관)로 처음 개최되었다. 2014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제2회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 ‘동지선 달 꽃본듯이’가 태봉대교~승일교 구간에서 열려 수만 명 외부 관광객들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2013년 제1회는 말 그대로 시작이었고, 2014년 제2회는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이 본격적인 겨울축제로서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했

다. 얼음트레킹은 겨울이면 철원평야를 찾는 두루미 쇠기러기 탐조여행과 궁합이 딱 맞는다. 앞으로는 체험과 스토리와 힐링이 있는 여행이어야만 관광객들의 마을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한탄강 여울걷기, 여름 래프팅, 겨울철새 탐조, 얼음트레킹 등은 3박자를 모두 갖춘 최적의 여행프로그램이다.

▶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는 2007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제8회 째를 맞이했다. 해마다 8월 초순 여름휴가가 절정에 달할 무렵이면 김화 화강 쉬리공원 일대에서 철원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개최된다. 올해 제8회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는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위원회 주최로 ‘가족과 장병이 함께, 즐겁고 시원하게’라는 주제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다슬기 콘서트, 도전 화강 골든벨, 백골의 밤, 위문열차 공개녹화, 다슬기 레크레이션, 다슬기 뮤직 박스, 다슬기 주민노래자랑 등 공연행사와 ‘황금 다슬기를 잡아라’, ‘토마토 속 보물을 찾아라’, ‘워터 스프래시 & 챌린지’ 등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지 뜨기, 부채 만들기, 황금다슬기 열쇠고리, 나무문패 만들기, 석공예 전시, 야생화 전시, 조물락 점토, 도자기 만들기, 전통 연 만들기 등 20여 가지 전시회 및 체험부스가 운영되었다. 특히 육군 제5군단과 제3사단 협조로 전시된 최신 군 장비 전시회는 직접 만져보고 시승까지 해볼 수 있는 보는 기회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메인 행사장 주변에 크고 작은 3군데 수영장과 썰매장이 운영되고, 각종 이벤트가 실시되어 어



제8회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 공연장

른과 어린이가 함께 즐거운 가족 축제였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을 합쳐 총 20여만 명이 찾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철원군 각 마을 부녀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에는 감자전, 두부모듬전, 떡갈비, 옥수수 샐러드 등 철원의 각종 향토음식들이 선을 보였고, 특히 다슬기를 활용한 음식이 인기를 끌었다. 또한 쉬리공원에 300여 개 텐트를 동시에 칠 수 있는 넓은 야영장이 준비되어 많은 캠핑족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했다.



김화 화강 쉬리공원 내 야영장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화강(남대천) 변 쉬리공원이고, 공원이 속해있는 김화읍 학사리는 별칭이 쉬리마을이다. 북한과 인접해 분단과 전쟁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통일을 앞당기는 평화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알리고자 쉬리마을이라고 명명했다. 사실 김화읍은 남북분단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화군으로서 그 면적 규모는 철원군보다도 컸다.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김화군 면적의 3/4이 북한 땅에 속하게 됐고, 1/4만이 남한에 남는 바람에 지금은 철원군에 편

입되어 김화읍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화읍 주민들의 김화군 사랑은 남다르고 통일이 되면 김화군으로 복군 하리라는 열망이 대단하다. 학사리 쉬리마을 앞에는 북한에서 발원해 한탄강과 합류하는 화강이 흐른다. 화강에는 쉬리, 어름치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여름에는 백로, 왜가리 등 여름철새가 겨울에는 두루미,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 겨울철새들이 즐겨 찾는다. 김화읍 주민들은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를 통해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탈피해 군인들과 서로 고마움을 느끼며 존재감을 인정하는 상생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다슬기 축제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자부심이 생겨 고향 사랑은 물론 지역 발전 아울러 시민의식까지 성숙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푹푹 뭉쳐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지는 건강한 주민공동체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